

# 美, 비핵화 가속페달 밟을 듯... 실무협상 곧 착수

‘CVID’ 빠진 공동성명서에 사인 대신 ‘완전한 비핵화’ 단어 사용

美, 비핵화 관련 ‘다소 양보’ 분석 CVID 상응조치 지속적 요구할 듯

‘비핵화는 있었지만 CVID는 없었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이같은 골자가 담긴 공동성명에 함께 사인을 했다.

비핵화 문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였다. 그만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가장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한 것도 바로 비핵화 문제였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선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가

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주장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 하루 전인 지난 11일에도 “북한이 CVID에 착수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전례 없는(different and unique)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CVID를 약속해야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할 만큼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곧 CVID였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CVID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를 보고 싶어한다”고도 말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주도하는 양국 실무진이 정상회담 하루 전날 밤 늦게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CVID’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담 뒤 두 정상이 각각 사인한 공동성명에는 CVID가 없었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실제 이날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비핵화와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에게 다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대해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

통령이 ‘세기의 핵 합약’을 도출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통크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 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작전상 후퇴’를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곳(the whole place)을 비핵화할 것”이라며 “그가 이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김 위원장)는 내 생각에 자신의 나라를 위해 아주 멋진 뭔가를 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처럼 공동성명에는 CVID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2009년 4월 당시 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다시 북한에 복귀시켜 우리농축핵프로그램(UEP)을 포함해 북한이 향후 제출할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함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체제보장’ 추상적... 北, 후속회담 매진할 듯

공동합의문 전문에 ‘체제보장’ 약속 ‘비핵화·평화 구축’ 보다 우선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담긴 미국의 대북(對北) 체제보장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까지 유효한 불가역적인(Irreversible) 체제보장 조치를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전문과 합의문 1항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수준의 다소 추상적인 내용만 담겼다. 추후 양국 간의 실무협상을 통해 대북 체제보장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북미 정상이 서명한 이번 합의문 전문

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 합의문 1항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처럼 대북 체제보장과 관련해 양국은 다소 포괄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추후 실무협상에 더욱 매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두 정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 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합의문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 보다 우선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해 북

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체제보장의 로드맵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수교’가 거론된다. 미국이 한때 적대국이었던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전격적으로 수교한 사례를 고려하면, 유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한편, 두 정상은 합의문을 통해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비서실장 김여정 ‘맹활약’... “남매는 용감했다”

합의문 펼쳐주는 등 존재감 드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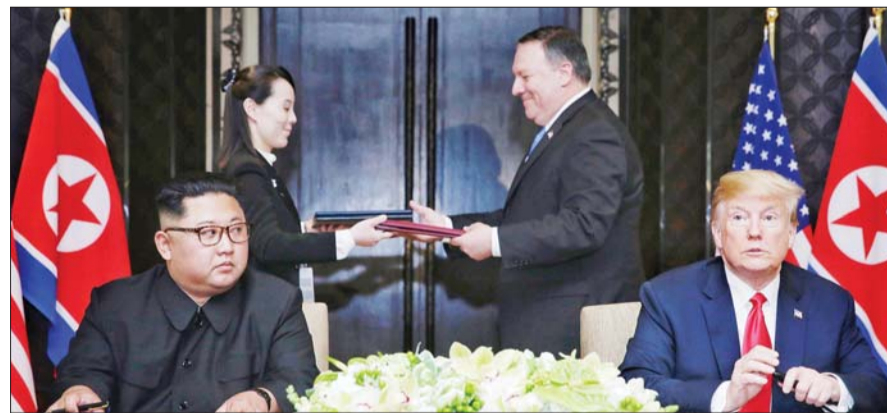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보좌 역할을 톡톡히 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 위원장 곁에서 서펜 뚜껑을 열어주고 합의문을 펼쳐며 오빠를 도왔다.

앞서 업무 오찬에도 참석해 ‘세기의 핵담판’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힘을 더했다.

미국 측에서는 이 역할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담당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정치적 입지를 짐작하게 했다. 북한의 로열패밀리 일원인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누구보다 가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로 꼽힌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



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여정 당 제1부장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남한을 방문했을 때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공식 남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에 나타나는 등 올해 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진희 기자 valere@



## 김정은 “나이스 투 미츄”... 트럼프에 첫 인사

“훌륭한 관계 맺을 것” 트럼프 발언에 김정은, 미소띠며 “하하하” 웃기도

“나이스 투 미츄, 미스터 프레지던트(Nice to meet you, Mr. president).”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인사말을 영어로 했다.

학창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낸 김 위원장은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사는 영어로 했지만 회담장에 들어가선 우리말을 썼다.

일부에선 영어 인사말이 김 위원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통역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김 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말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마주하기까지 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표현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도,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다”(That's true)고 화답했다.

단독정상회담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정말 좋다.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것이고, 엄청난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예견하기도 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김 위원장은 “아주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통역의 발언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하하”하고 웃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손을 모으고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먼저 악수를 했고, 밝게 웃으며 특유의 ‘엄지 척’ 제스처를 했다.

이에 앞서 예정된 9시(현지시간)보다 약간 늦게 첫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10초 가량의 짧은 악수를 나눴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대로 김 위원장과 20~30초 가량 길게 악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84년생으로 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보다 38살이나 어린 김 위원장은 첫 만남에선 긴장한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주 웃는 등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김승호 기자